

KBS 인간극장 '산내리로 간 미술관' 7~11일 방영

“우리가 작품 만든게 신기한가 TV에 나온다네”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는 18가구 2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한적한 마을이다. 이광연(53) 이장이 가장 젊은 사람 속에 낄 정도로 마을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다. 야트막한 산자락이 감싸고 있는 이곳 주민 대부분은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곳 할머니들이 요즘 방송에 출연하느라 시끌벅적하다. 산내리에 자리 잡은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에서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KBS방송 인기 프로그램 '인간극장'의 주인공으로 섭외됐기 때문이다.

KBS '인간극장'은 11월7~11일 오전 7시 50분 산내리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산내리로 간 미술관'을 방영한다.

여느 시골 마을과는 달리 산내리 주민 대부분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며, 도자기를 굽는다. 또 자신들의 작품을 모아 잠월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연 여럿한 작가들이다. '인간극장' 촬영팀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산내리에 머물면서 잠월미술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노인별곡-일흔하나에 부르는 사랑노래'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노인별곡'은 복권기금을 받아 미술관 인근 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미술관에서 그림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 입장도 빛이 그릇과 접시, 수저, 젓가락 등을 만들고 여기에 꽃잎을 띄워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



함평군 산내리 잠월미술관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는 마을 할머니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방송국 관계자들의 모습.

함평 잠월미술관에서 예술 즐기며 살아가는 주민들 모습 담아

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또 주민들이 사진기를 들고 마을 풍경을 찍어 전시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만드는 모습도 촬영됐다.

한 할머니의 생일잔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 광주지역의 한 의사가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찰 봉사활동을 펼친 모습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무엇보다도 손녀 또래 큐레이터들과 좌충우돌하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할머니들의 일상이 영화처럼 잔잔하게 펼쳐졌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빈집 담벽에 알록달록한 벽화도 그렸다.

정영순(74) 할머니는 “일 안 하는 날에는 고스란히 있었는데,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들어 보니 재밌고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니깐 신기하다”고 말했다.

촬영 기간 동안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부끄럽다”며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 주민도 있었고, 어색한 말투에 웃음보가 터져 한 참 동안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미술관 앞마당에서 직접 재배한 양파, 고추, 부추를 푸짐하게 내놓고, 고소한 부침개를 부쳐 촬영팀을 대접하기도 했다.

김광옥 관장은 “할머니들이 산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며 “시골의 일상이 전파를 타면, 도시 시청자들이 시골의 삶을 이해하고,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이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산내리에 터를 잡은 잠월미술관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광주 지역 관람객들을 초청해 산내리 주민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등 이색 행사를 열고 있다. 미술관 문의 070-8872-671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스트 탄생 200주년, 작품으로 만나다

9일 광주피아노아카데미·18일 광주시립교향악단 기념음악회

올해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리스트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 지역 연주단체들이 리스트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무대를 잇따라 마련한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김선자)는 광주에서 초연되는 피아노곡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을 들려준다.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전세계적으로 전곡을 녹음한 음반이 10여장에 그칠 정도로 연주 자체가 드문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은 낭만의 시인 라마르틴의 시와 성서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이다.

'기도', '아베마리아', '죽은 자의 추억' 등 모두 10곡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익희·강희미·김은영·주소영·임리라·김정아·이근영씨가 연주자로 나선다. 문의 010-6331-6834.

오는 18일(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기념음악회를 준비했다.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의 지휘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조재혁(성신여대 교수)씨가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석사·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맨하튼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씨는 스페인 마리아 카날 수콩쿠르, 뉴올리언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광주시향은 또 김연아 선수가 작품 배경음악으로 써 화제를 모았던 '죽음의 무도', '교향시 전주곡'도 들려준다. 문의 062-613-8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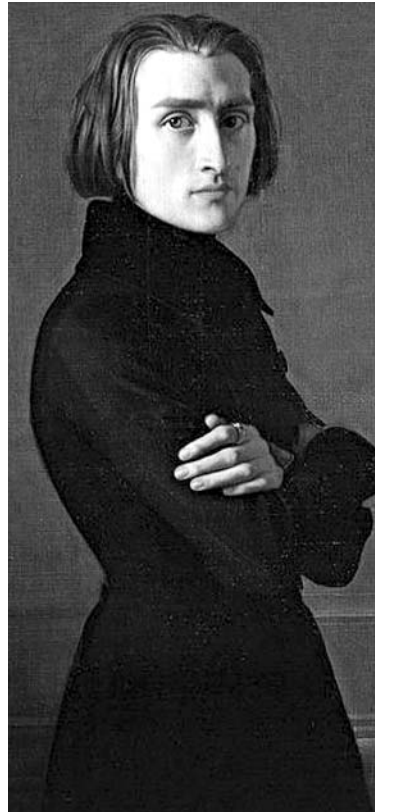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자



조재혁



가야금 병창으로 즐기는 남도소리

정자경 발표회, 7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정자경(국립남도국악원 단원) 가야금 병창 발표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여정-가야금병창으로 즐기는 남도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정씨는 '적벽가' 중 '조자룡 활쏘는 대목',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진도 방아타령', '아리랑 연곡' 등을 들려준다.

전남대 국악과와 조선대(교육학 박사)를 졸업한 정씨는 제26회 전국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광주 가야금연주단원, 전남대 국악과 강사로 활동중이다.

이번 공연에는 김주원·박혜선·권아름, 알수 사물놀이 팀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움직이듯 멈춘 '반사된 풍경'

정운학 초대전, 8일~12월 4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오는 8일~12월4일 설치작가 정운학씨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반사된 풍경'을 주제로 실험성 강한 신작을 선보인다.

플라스틱을 소재로 구겨진 옷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상화 했다. 흔히, 곱질이라고 부르는 옷이나 자투리를 통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부유하

는 현대인의 모습도 담아냈다.

또 이번 전시를 통해 LED 빛을 이용한 '책 이야기' 연작과 무형의 유기체들이 움직이듯 멈춘 듯한 '춤' 연작도 선보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과 브라질수바의 조형미술대학을 나온 뒤 광주와 독일 등지에서 7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필름아트페어 등에



'춤'

참여했고, 광주광역시도 시민과빌리 062-613-5391. 미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문의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술인 5만7000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예술인 약 5만7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예술계 숙원사업이 법이 제정돼 주로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000천여명이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잡음없이 잘 들린다 음성증폭기 블루투스형출시!!

속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너무 편리한 소리큐 S20 고성능 음성증폭기

음성이 잘 안들리실 때!
두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TV를 시청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핸드폰 통화할 때! 상담할 때!
강의를 하면서 대중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 (고속충전·정시간 사용)

귀에 꽂은 상태로 작은소리를 크게 듣고싶은 분들에게 소리큐 S20 음성 증폭기는 좋은 친구가 될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특별우대 ★ 어르신께 최고의 선물 ★

인체공학적 초소형 초경량 블루투스형 설계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간편한 휴대, 간편한 사용!
무게 9g 길이 5.5cm의 초경량 초소형 인체공학적 블루투스형 설계로 착용시 무게감이 없어 편안하며 TV시청, 운동, 업무처리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노출시 거라길 염려가 없고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사용 할수 있게 설계된 첨단 고성능 음성증폭기로 성능 올리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뛰어난 품질과 사후관리를 1년간 무료교환 보장합니다.

볼륨 조절버튼
전원 버튼
충전식

▶이어주 사용
▶편리한 사용방법
▶목걸이로 분실 걱정없이 휴대가능
▶양쪽 귀로 청취가능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일상대화 | 텔레비전 시청 | 공연관람 | 강연회 | 조류관찰 | 자연관찰 | 야간감시 등등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0-6번지
송정한방병원 건물 4층 원일엠에스
문의 : 062)942-9822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항술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여실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텐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